

PKN-Basell, PP 40만톤 합작투자

폴란드에 HDPE 32만톤 플랜트도 건설 ... 총 3억5000만달러 투자

PKN Orlen 및 Basell은 폴란드의 Plock에 합작기업을 설립하기로 했다.

PKN-Basell의 합작기업은 Basell의 Spheripol 기술을 적용한 PP 40만톤 플랜트 및 Basell의 Hostalen 기술을 적용한 HDPE(High Density Polyethylene) 32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며, 우선 PKN이 LDPE(Low-Density Polyethylene) 15만톤 및 PP(Polypropylene) 14만톤을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.

총 투자액은 약 3억5000만달러이며, 200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또 Bank of Tokyo-Mitsubishi, KBC Finance Ireland(Dublin), Societe Generale(Paris)를 포함한 세계은행 그룹이 합작기업에 재정을 지원키로 합의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7/04>